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5호 【루계 제25278호】 주체105(2016)년 5월 1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분남 위라펏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3일 폰캄 인타부이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쎌담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들과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들, 유엔인구기금사무소에서 꽃바구니를,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축하편지와 선물을, 유엔림시대리상주조정자 겸 세계식량계획 대표, 유엔개발계획 림시대리상주대표 겸 유엔인구기금 림시대리대표, 유엔아동기금 림시대리대표, 세계보건기구 림시대리대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부대표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과 베닌사회주의당,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과 베닌사회주의당에서 13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일조우호련대 군마현민회의와 에파도르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위원장 오스왈도 파리바 알바라도,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련대성 에파도르 과판다협회 위원장 홀리오 발레스테로스 에스펜이 12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베바는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바는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캄보쟈꼼쎈베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정화 및 통일당 위원장,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쏘련공산당소속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몰도바통화국 공산주의자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웨리에의 공산당 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정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민주콩고공산당 총비서, 민주콩고루뭄바전국운동 전국위원장, 민주콩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질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질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맑스-레닌주의공산당 총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위원장,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페루사회혁명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자유두표동맹을 위한 페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딸따르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스위스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 정치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에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브라질공산당 정치 및 국제비서, 아르헨띠나 에비따운동 국제비서, 미국로동자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장판, 하바롭스크시장,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아협주단 단장, 로씨야 21세기판현악단 단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조선의 통일과 정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리사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꾸바, 네팔, 베바는, 말레이시아, 만바,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스리랑카, 캄보쟈, 타이, 파키스탄, 끼르기즈스딴,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쎌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벨지끄, 스위스, 스웨리에,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베닌, 세네갈, 콩고, 민주콩고, 튜니지, 앙골라, 우간다, 에질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바베이도즈,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볼롬비아, 페루, 아르헨띠나, 에콰도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면서 그들은 그이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제철연료가 쏟아진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능력이 큰 무연알탄생산기지 완공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커다란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며칠 앞둔 지난 3일, 김철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능력이 큰 무연알탄생산기지가 시험조업에서 성공한데 이어 생산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제철연료생산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련합기업소에서는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확고한 돌파구가 열리고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철강재생산비중을 급격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철강재와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력자강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능력이 큰 무연알탄생산기지는 자립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져나가는 투쟁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에게 무진장한 석탄을 성형, 건조,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철연료를 생산하여 주체철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이곳 기술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쏟아져나오는 우리의 제철연료는 기술적지표들이 응당한 수준에 도달하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 불같은 마음을 지닌 김철로동계급은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능력이 큰 무연알탄생산기지건설은 기초공사를 비롯한 건축공사와 원료장, 성형공정, 흐름식원료공급계통, 산화로를 일떠세워야 하는 참으로 방대한 공사였다.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이 해당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우리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성형장에는 집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여러 생산공정들의 과학화수준을 높일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하였다.

불리한 날씨속에서 벌어진 건축공사는 자연과의 투쟁이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70일전투의 불길드높이 건설속도를 그전보다 2배이상 높이였다.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총동원된 가운데 많은 량의 장치품들과 제관품들을 제작하면서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전투가 립체적으로 전개되였다. 김철로동계급은 39종에 100여대에 달하는 크고작은 설비들을 자체로 보장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하루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매일 두몫, 세몫의 일감을 해제끼였다. 알탄성형기 등의 설비가 미처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자체로 훌륭히 제작하였고 여러대의 용량이 큰 송풍기와 변압기들도 새것이나 다름없이 되살려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철야전투의 나날 용접의 불보라가 세차게 흩날린 전투장에서는 지상확대식조립방법과 같은 앞선 공법들과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는 기발한 착상들이 도입되여 1 000여t의 장치품들과 제관품을 짧은 기간에 제작조립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다.

공사가 힘있게 추진될수록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투장마다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고 따라앞서기와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조직하여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총폭발시키였다. 련합기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시간별로 조개가며 공사일정을 높이 세우고 건설물의 질이 담보되도록 면밀하게 작전하며 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찬 돌격구령을 울리였다.

결과 70일전투기간에 대상공사를 완전히 결속하고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투렷한 자욱을 새기였다.

김철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훌륭히 일떠세운 능력이 큰 무연알탄생산기지는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로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총폭발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과시하고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김철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철강재생산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자랑스럽게 빛내인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활화산마냥 분출된 애국열의를 안고 강철전선지원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70일전투의 불길속에 지난 4월에도 거의 모든 단위들에서 파철모으기계획을 앞당겨 끝냄으로써 금속공장들의 숨결을 높여주었다. 5월 10일까지 상반년, 년간 파철모으기계획을 앞당겨 끝낸 단위들은 전국적으로 수천개에 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파철모으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제철, 제강소들에 파철을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책임일군들과 고급속사업소 일군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 일군들이 생산단위들과 동, 인민반주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 한편 솔선 앞장에서서 파철수송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강철전선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안변군, 세포군, 평강군, 원산시, 회양군, 금강군, 김화군에서 4월 파철모으기계획을 200%이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도적으로 파철모으기계획을 거의 3배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황해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자강도, 함경남도, 평양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척같이 다지는데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파철을 모아들여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장연군에서는 4월 파철모으기계획을 500%이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안군, 신천군, 배천군, 회령시, 김책시에서 200%이상의 높은 실적을 올리였다.

남포시, 자강도에서는 각각 577개, 457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끝내였으며 년간계획을 끝낸 단위는 각각 190여개에 달한다.

국가관광총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룡해운성, 외무성, 대외건설지도국, 출판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 성무원들도 파철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많은 파철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철도성 일군들도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애써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수송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흥철도국과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파철수송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수십방의 화차를 짧은 기간에 수리하여 집중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70일전투의 승전보성을 장엄하게 울리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철증산의 동음이 더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금속공장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를 일떠세웠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 제7차대회파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지열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끝낸 룡성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 단위들에서 요구하는 지열설비를 더 많이 만들어보내줄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열설비는 공기압축기와는 생산공정이 다르기때문에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지열설비를 전문생산하는 기지를 꾸려놓아야 합니다.》

몇해전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열롬프를 자체로 설계하고 만들어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기업소에 지열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도당위원회와 기계공업성의 적극적인 지도당조밑에 지열설비를 전문생산하는 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나가면서 건축공사와 설비제작전투를 본때있게 벌리였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건설지휘부를 내오고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면서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일군들은 설계와 자재보장, 설비제작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건축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기초, 보공크리트치기와 벽체축조에서, 1, 2제관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강철구조물제작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철야진군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지난 4월말까지 자체의 랭각기, 동풍기, 건조로, 10t운반대차, 조립대를 비롯한 설비, 장치품들을 제작설치하였다. 선군주철공장, 3, 4기계직장, 1, 2제관직장, 대형공작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 장치품생산과 설치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연건평이 1 400여㎡에 달하는 지열설비전문생산기지는 총조립장, 시운전장, 종합조종실, 출하장 등으로 되여있다.

련판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조직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룡성의 로동계급과 힘과 지혜를 합쳐 현대적인 지열설비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그 과정에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열설비생산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고 경험도 축적하였다.

련합기업소에 지열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지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공장, 기업소, 기관들,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의 랭난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능력의 지열설비들을 계렬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만만한 투지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황남땅이 당면한 봄철영농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도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영농공정에 따르는 전반적인 영농작업을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당 제7차대회파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업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도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기어이 돌파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황해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가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올해알곡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때부터 올해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도의 전반적인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통이 큰 작전을 펴고 영농지도를 짜고들었다.

영농물자보장과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협동농장들마다 한해 쓸 비료와 비닐박막이 넉넉히 마련된 기쁨을 안고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봄철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다.

도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논밭 정보당 20t이상의 거름과 5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실어냈다.

도적으로 관개용수보장에 필요한 수많은 양수기, 변압기, 전동기수리를 계획한 날자보다 5일 앞당겨 끝냈다. 도적으로 5 800여㎞의 물길가시기를 열흘이나 앞당겨 끝냈다.

지금 도의 크고작은 저수지들마다에 물이 충분히 채워졌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도의 일군들과 기계화초병들은 논밭갈이를 지난 시기보다 열흘이상 앞당기였다.

도의 농기계공장들에서 능률높은 새 농기계들의 시제품을 생산한 소식이 봄철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지도밑에 과학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두벌농사면적을 1, 7배로 늘인데 맞게 선진영농방법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였다. 밀보리심기에 이식재떼와 단지재떼방법을 받아들여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식수와 이식당 알수를 늘여 앞그루밀보리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되였다. 감자건짝모재떼방법의 도입으로 앞그루감자수확에서도 성과를 기대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논갈이와 써레치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토양의 수분날기를 현저히 줄이도록 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 제7차대회파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선진영농방법들이 널리 도입일반화되는데 맞게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올해알곡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박철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김 정 은

만리마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품

심산유곡에 넘친 사회주의바다향기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은 당이 맡겨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어머니당에 귀중한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창당 첫 시기부터 장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운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이 뿌리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

파연 무슨 힘이 우리 청년들을 그토록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만리마시대정신의 창조자로 훌륭히 키웠고 그들의 대표를 영광의 대회장의 단상에 우뚝 올려세웠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신 은정어린 솜옷을 전달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한무렵의 강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있던 때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린 포근한 솜옷을 받아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격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발전소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밤낮없이 뛰여다니던 지휘관들도, 오랜 세월 청년돌격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구대원들도, 완공의 그날을 그려보며 모진 피곤과 아픔, 힘겨움과 싸워온 정말한 돌격대원들도 모두가 사연깊은 솜옷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커다란 흥분속에 잠겨있었다.

백두산기슭의 심산유곡에 또 하나의 위훈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고 풀어주는 어머니당의 사려깊고 웅심깊은 손길이 《백두산》솜옷 하나하나에 얼마나 소중히 담겨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에는 당의 전투명령을 피끓는 심장에 쪼아박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안고 계신 위대한 어버이의 한없이 다심하고 따뜻한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우리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만리마시대정신의 체현자들로 내세워주시며 꿈에도 생각지 못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이 1월의 강추위속에서 산과 들을 지나고 령과 령을 넘어서 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게 안겨진 은정어린 그 솜옷들에 눈물겹게 깃들어있었던가.

산과 들에 대한추위가 서려들기 시작할 때였다.

새해에 들어와서부터 벌써 여러차례나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즈음에도 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쓰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일군들에게 지금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하여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솜옷을 보내줄데 대한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온 나라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도와줄데 대한 조치까지도 취해주시였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두달전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모두에게 품을 들여 마련한 멋있는 솜옷과 겨울내의, 털신발과 장갑, 담요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기뻐할 그들의 행복넘친 모습뿐이 아니라 고향의 부모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자랑하고싶고 한생토록 귀중한 재보로 여기고싶어 덮어질세라 북방의 추위속에서도 정히 간수하고있을 돌격대원들의 마음속생각까지도 깊이 헤아리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새 솜옷을 안겨주시려는것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발전소를 건설해가는 청년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마음을 쓴다고는 하였지만 그토록 웅심깊고 진정어린 혈육의 정과 사랑을 기울인 사람들이 과연 얼마였던가.

백두산기슭에서 자식들이 당의 은정을 한가득 받아안으면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대해 대전해하고 자랑도 하였지만 그이처럼 돌격대원들의 속생각까지 헤아리며 발전소건설장에 마음을 얹은 부모는 몇몇이였던가.

세상에 정치가는 많아도 북방의 혹한속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작업용솜옷까지 보내준 인민의 령도자는 또 언제 있었던가.

하기에 온 나라의 지성의 마음이 달기도 전에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포근한 솜옷을 받아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온 백암땅이 떠나가도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속에 백두전역의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언제가 되고 《얼음기둥》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발전소를 일떠세울 각오를 안고 불사신처럼 투쟁하여 공사일정을 앞당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백두산기슭의 발전소건설행로는 이렇듯 위대한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바다같은 은정과 보살피심속에 꽃펴나는 영웅청년신화창조, 영웅청년정신창조의 새 력사로 수놓아지였다.

지난해 반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멀고 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찬비에 젖을세라 비옷과 장화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식료품들과 수산물들을 거듭 보내주시였으며 백두전구에서 겨울을 맞는 청년들이 추워할세라 겨울옷들까지 한가득 안겨주신 그이의 크나큰 은정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그러시고도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해 발전소건설을 끝냈을 때에는 멀고 험한 길을 찾아오시여 강령적인 연설도 하시고 세상에 없는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청년강국의 주인공,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정녕 이 땅의 정법한 청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 창조의 거인, 시대의 영웅,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키워주시는 영원한 삶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제일 난문제로 나서고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같은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시대의 영웅들로 억세게 자라나 자기의 불패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백두산》솜옷에 담긴 깊은 뜻을 잘 알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인 어기 대자연개조전투장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쪼아박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곧바로의 정신,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이며 형언할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동지적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난을 뚫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을 감옷과도 같이 떨쳐입은 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북방의 그 엄혹한 추위를 보답의 열정으로 이겨내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고 당 제7차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였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워온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잡아주신 기적창조의 그 손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강성번영의 활로를 보란듯이 열어제끼며 그 길에서 손이 닳으면 어깨를 들이밀고 온몸을 다 불태워서라도 기어이 만리마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의 기개와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얼마전 우리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어느 한 려단의 일군과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바다가에서 나서자란 그는 한창 고향자랑을 하다가 문득 바다에서 사는 어떤 동물에 대해 말하면서 본 일이 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지로 본적은 없어 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일군은 자기도 한때 고기배를 많이 탔지만 그 동물을 처음 본것은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였을 때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섭조개며 도루메기뿐아니라 희한한 바다동물까지 보내주시였다고 하였다.

바다태생인 그 일군도 본적 없고 맛보지 못한 바다동물의 고기라니 도시와 농촌, 산골에서 나서자란 돌격대원들이 그것을 처음 대했을 때 심정이 파연 어떠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을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백암땅의 높고 험한 심산유곡에서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 자랑높은 청춘대기념비를 일떠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언제나 함께 있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하기에 백두청춘들에 대한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애틋한 정은 참으로 류다르고 각별한것이였다.

지난해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었을 때였다.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위대한 장군님 생각으로 가슴을 적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저 멀리 백두산기슭에서 북방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발전소를 건설하고있는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도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이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많은 량의 섭조개와 도루메기를 잡은데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산세 험한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청년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영웅적투쟁에로 이끌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시며 인민군대에서 마련한 수산물전량을 백두전역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의 지성이 어린 사연깊은 수산물들을 실은 자동차가 백두산기슭에로 달리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였고 이때부터 바다면 백암땅의 심산유곡에서는 도루메기며 낙지뿐아니라 희한한 바다동물에 이르기까지 전에 없던 바다향기가 물씬물씬 풍기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청춘들에게 보내주신 희한한 바다동물이 발전소건설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평양됐다. 백암땅의 발전소건설장에 그 바다동물이 들어서자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수많은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어제는 섭조개맛을 보았는데 오늘은 말로만 듣던 바다동물구경을 실컷 하고 그 맛까지도 보게 되었다고 하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너무도 크나큰 사랑에 목이 메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우리 청년들을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겯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바다멀리 백암땅의 심산유곡에도 이렇듯 사회주의바다향기가 풍기게 되였다.

본사기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키우시는 나날에

값 높은 평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솟아오른 3호발전소언제를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이날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바라보기만 해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난다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까지 건설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기쁜것은 삼지연군의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북방의 혹한속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심산계곡에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백두대지에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긴 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여러차례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고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과 불멸의 령도가 오늘과 같은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는 심장의 웨침이 뜨겁게 울리고있었다.

혁명사적교양실이 위훈전시관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9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 전망대지구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을 찾으시여 공사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중에 있는 혁명사적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일군들의 격정은 컸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대를 이어 전해가야 할 혁명사적교양실을 청년들의 위훈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바꾼다는것은 전례없는 일이였던것이다.

그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공식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되였다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이런 정신, 이런 문화가 온 나라 청년대오에 차넘치게 되면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력은 백배해질것이라고, 그때에 우리 당은 여기에 청년돌격대원들의 기념비와 위훈전시관을 세워 그 공적을 길이 전하며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를 탐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지에서 백두청춘들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배우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은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을 새겨주는 사상교양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금별로 빛내주신 위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이 한창이던 지난해에 발전소에 세울 영웅청년기념비형성도안을 보아주시였다.

당시 형성도안에는 기념비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위훈을 상징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마크를 새겨넣게 되여있었다.

형성도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세울 영웅청년기념비에는 청년동맹마크가 아니라 공화국영웅메달을 형상하여야 한다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백두대지에 새겨진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형성도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모든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충정의 한길을 걸어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대견하시였으면 그들의 위훈을 금별로 빛나도록 해주시는것이랴.

금별로 빛나는 영웅청년기념비!

진정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청년강국을 앞장에서 일떠세우는 백두청춘들의 값높은 위훈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보여주고있다.

감 원 남

그 품속에 영웅으로 자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느라니 백두산기슭에서부터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게 하시여 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그이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와 불멸할 령도업적이 내 앞가슴에 단 영웅메달에도 그대로 무겁게 실려있는듯싶어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내가 청년돌격대에서 복무한지도 어느덧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백암땅에 첫 배낭을 풀 때까지만 해도 나는 자신이 영웅으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6개월은 땅이 얼어붙어있고 눈과 비가 때없이 내리는 이곳 지대의 자연기후조건과 북부산악의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은 발전소건설을 가로막는 난관중의 난관이였다.

오랜 돌격대생활과정에 려단의 지휘관으로 성장한 나에게 있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어려차례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고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발전소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거듭거듭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나는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때를 잊을수가 없이 자주 1호발전소언제를 찾아가 내가 섰던 자리에 마음을 세워보군 한다.

그러느라면 멀고 험한 북방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오시여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결속하고 1호발전소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오는듯싶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때 용용한 불의 대하가 되여 김일성광장을 누벼나가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대렬의 힘찬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저도모르게 마음은 숭엄해진다.

하기에 나는 백두의 영웅청년신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진정한 창조자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고 소리높이 말하고싶다.

나는 평범한 돌격대지휘관을 로력영웅으로까지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당 제7차대회 결정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는데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기상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함경북도려단 려단장 정 성 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기계설비전시장 참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이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국가책임일군들이 전시장을 함께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먼저 전시장에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수많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시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 뻐스,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기계제품들을 보시고 하나와 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기계제품들을 훌륭히 제작한 단위들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전시장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과학교육기관들에서 생산한 수십종의 기계설비들이 전시되여있다.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능력이 큰 새형의 80마력뜨락또르앞에서 미남자와 같은 멋쟁이모습에 감탄을 표시하였다.

모든 기술적성능들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뜨락또르를 보면서 그들은 전후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30여일만에 첫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만들어낸 천리마시대 자력갱생의 대혁신이 당중앙의 령도밑에 오늘은 새로운 만리마시대 자력자강의 눈부신 기적과 번영으로 이어지고있음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과종기, 두둑짓는기계, 종합발갈이기계, 분무기, 후치기, 감자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이동식버종합탈곡기를 비롯하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제작된 20여종의 농물적인 농기계들은 당의 뜻을 받들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과 확신을 안겨주었다.

참관자들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개발한 115마력티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자동차, 청진뻐스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뻐스도 경탄속에 돌아보았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제작한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수산부문에서 무어낸 《황금해》계렬의 만능화된 고기배, 평남배수리공장에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를 보여주는 직관물앞에서 그들은 현대화이자 국산화이고 국산화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뜻을 실천으로 다시금 확증한 우리 로동계급의 충정의 세계,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전력의 무부하손실을 철천 줄일수 있는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와 전력계통운영의 과학화실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대용량발전기수자식려자기, 새로운 채취기계설비, 전동기,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 CNC기계들, 자연에네르기리용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는 여러종의 풍력발전기 등 새로운 기계설비들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제품도 척척 만들어내는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수준과 기계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제품들은 참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다.

기계설비전시장에서 그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을 충정의 70일전투에로 불러일으켜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창출하도록 이끌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그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굳건해진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 주체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긍지를 간직하였으며 자강력제일주의야말로 우리의 힘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앙양된 기세를 순간도 늦춤이 없이 증산투쟁, 창조투쟁, 련속공격전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붉은기정신으로 승리의 기적소리를 울려간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70일전투의 승전포성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는 오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창조된 기적이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다.

당이 제시한 목표보다 전기기관차 2대를 더 제작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로 마련!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조건에서 쉽게 안아온 위훈이라면 붓을 든 우리의 심정이 이렇듯 키다란 격정과 흥분에 휩싸이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워주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수명이 바라고 당에서 요구하는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자력자강의 붉은기정신을 꿋꿋이 계승하여 악랄한 경제제재책동에 매달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보란듯이 위대한 만리마시대창조의 한계지를 또다시 자랑스럽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70일전투기간 무엇을 해놓았는가를 아는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심정을 안고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달려왔으며 어떤 정신으로 기적을 창조하였는가를 아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당의 호소를 받들고 천만이 총궐기하여 떨쳐일어나 만리마로 불리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그 위대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이들의 70일격전의 하루하루가 다 말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짓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해나갈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고무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대한 정신이 여기 《붉은기》호전기기관차의 고향에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붉은기》호는 어떻게 태여나는가

《붉은기》호!

우리 당력사에 자력갱생의 금문자로 뚜렷이 아로새겨진 전기기관차이다.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우리의 전기기관차가 태여나리라고 믿은 사람은 파연 몇이였던가. 그때 대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서평양철도공장(당시)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끝끝내 제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정신을 력사에 길이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백두에서 휘날린 혁명의 붉은기를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전기기관차에 새기도록 해주시고 그 이름도 《붉은기》로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태여난 《붉은기》호.

그것은 자력자강의 붉은기정신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였다.

우리가 오늘 멀리 흘러간 세월을 다시 거슬러보는것은 첫 전기기관차가 태여나던 력사의 한 시기를 추억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남들이 다 못한다고 해도 수행이 준 과업은 무조건 관철하여 수령의 권위, 당의 권위를 지켜낸 천리마시대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결코 추억의 시대가 아니였으며 그 나날에 높이 발휘된 투쟁정신은 력사의 한 시기 존재한 시대정신이 아니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 아침이였다.

각 직장의 당, 행정일군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긴급소집되였다.

《당에서는 우리 련합기업소에서 70일전투기간에 객차수리와 도장계획외에 어려대의 전기기관차도 제작할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련합기업소 지배인의 말인에 모두는 긴장해졌다. 당시 기업소의 형편에서 기관차제작은 엄두도 못낼 일이였다. 기관차 한대를 제작하는데만도 수십톤의 강재와 철판 그리고 부속품은 무려 18만개나 들어야 했다. 객차수리용자재도 힘들게 보장받고 있는 때에 방대한 자재가 드는 기관차제작계획을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누구에게나 갈마들었다.

(이제 당장 그 많은 자재와 자금을 어디서 해결한단 말인가.)

속이 까맣게 타드는것 같았지만 지배인은 내색없이 자재추진을 위한 분담부터 하였다.

이어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이 이야기했다.

《우리 기업소의 전세대 로동계급은 첫 〈붉은기〉 1호전기기관차도 오늘보다 더 어려운 빈터우에서 만들어 4차 당대회의 로력적선물로 마련했습니다. 6차 당대회때에는 8축전기기관차를 만들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기념〉호로 당에 올렸습니다. 력사적인 당대회때마다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우리가 오늘에 와서 자재가 없다고 손싸매고 나앉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각 직장에서 로동자들을 발동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해냅시다.》

회의는 이것으로 끝났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배인은 자재를 추진하러 서둘러 길을 떠났다.

지배인을 바래우고나서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당책임일군의 귀전에는 지난해 7월 련합기업소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간곡한 당부가 메아리로 울리고있었다.

그날 기별도 없이 련합기업소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공장에서 일한지 얼마나 되는가부터 묻으시였다. 한 일군이 이 동무는 제대배낭을 이곳에 풀어놓은 로동계급출신당일군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오늘의 총진군에서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이 기본이라고, 거기서 당조직이 불씨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그렇다. 나는 당책임일군이기 전에 붉은기전통을 이어받은 제대군인로동자의 한사람이다.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가자.)

그의 몸에서는 무서운 힘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제관직장에 들어서니 로동자들이 한곳에 모여앉아 머리를 맞대고 저마다 한가지씩 내부예비원천을 찾아내고있었다.

그의 가슴은 뭉클해왔다.

(이런 로동계급이 있는데야 무엇이 두려우랴!)

뜨겁게 달아오르는 심정을 안고 당책임일군은 그들속에 끼여앉았다.

《동무들, 우리모두가 잘 알고있는것처럼 우리 수령님들께서는 자력갱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항상 〈붉은기〉호가 태여나던 때의 일을 회고하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지하전동차를 개발해내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력자강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력자강은 우리가 오늘도 래일도 세대를 이어가며 계승해야 할 붉은기정신입니다.》

당책임일군만이 아니였다.

련합기업소 당조직이 통채로 생산현장으로, 로동자들의 심장속으로 들어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예로운 칭호를 심장에 새기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력자강의 로동계급으로, 근위대오로 자란 그 력사를 잊지 말고 오늘의 70일전투에서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기적을 창조하자.

당중앙의 의도대로 일군들이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지핀 불씨는 활화산같은 불길로 타올랐다. 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났다.

소재직장에서 전투가 시작된지 4일만에 한대분에 달하는 자재를 확보하고 2,000여종에 수만점의 소재를 제관직장에 보내주었다. 자재과에서는 지난 시기 회수하였던 용접봉꽁다리를 다시 녹여 용접봉심선재료를 생산할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4t의 용접봉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기관차조립직장에서는 자체로 내부예비전시회를 조직하였는데 직장종업원들이 베아링, 용접봉 등 긴요한 각종 자재들을 마련하여가지고 나와 사람들의 놀라움을 더해주었다.

한주일이 지나서부터 지배인을 비롯한 자재추진을 맡은 일군들이 피타게 노력하여 마련한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여 13일째인 3월 6일, 제관직장 로동계급은 온 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떨쳐나 내부예비를 탐구하여 모아들인 자재로 첫 전기기관차 차체를 일떠세웠다. 그 다음주부터는 두번째, 세번째 차체가 련이어 일떠섰으며 4월에 들어와 70일전투의 첫 전기기관차제작이 완성되였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은 이렇게 꿋꿋이 계승되고있다.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력자강의 붉은기정신이 생겨나며 그 정신에 떠받들려 조선의 《붉은기》호는 태여나고있다.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들이고 어떤 정신을 이어받았는가를 자각한 대중에게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무서운 힘이 폭발되였다.

두번째 차체가 일떠서던 날 2가공직장 생산현장에서 있은 일이였다.

낮이건, 밤이건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는 당책임일군에게 한 젊은 로동자가 우리와 같은 로동계급출신이라는게 사실인가고 허물없이 물었다.

보이라에 불도 때보고 주물직장에서 쇠물도 다루어보았다는 그의 이야기에 끌려 로동자들이 곁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나는 〈붉은기〉 1호제작자의 한사람은 아니지만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진행한 100일전투에 참가했던 전투원들중의 한사람이요.》

그의 이야기가 로동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우리는 낮과 밤이라는걸 몰랐다. 8축전기기관차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오직 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200% 해야 만족한 무조건 해야만 하는것으로 알았고 그 길에서는 조건타발이라는걸 몰랐다. 이것은 《붉은기》 1호제작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투쟁전통이였다. 우리는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넘으로 이어받아야 한다. 물론 오늘날 적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책동으로 하여 조건은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그때에도 적들의 책동은 있었고 난관도 많았다. 지금이야말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이 맥박치는 이곳에서 응당 70일전투승리의 모성은 더 크고 장엄하게 울려퍼져야 한다. …

《이왕 할바엔 본때있게 해봅시다. 우리는 전투계획보다 2대를 더 제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명예를 걸고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로동자들의 심장은 불을 토하고있었다.

당책임일군의 가슴은 확 넓어지는것 같았다.

그 어느 현장에 가나 로동자들은 조건만 보장해주면 능히 2대를 더 제작할수 있다고 신심있게 말하였다.

그날 저녁 현장에 내려갔던 당책임일군이 로동자들의 열의를 담아 제기한 증산목표는 일군들을 깜짝 놀래웠다.

오늘의 형편에서 맡은 계획을 수행하는것만도 기적인데 두대를 더 하다니?

련합기업소 일군들만이 아니라 성일군들까지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만장약한 대중의 힘이란 정말 무한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 찌릿해오는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여 70일전투가 시작되여 거의 한달이 되여오던 때에 련합기업소 당결정서에는 전투목표가 다시 수정보충되게 되였다.

당결정, 그 한자한자는 결코 무심히 새기는것이 아니다.

당의 령도에 총직한 자력자강의 투사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쪼아박는, 당앞에 다지는 엄숙한 선서이다.

전투의 하루하루는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날과 날이였다.

일부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날고 뛰여도 기술공정상 할수 없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장로동계급의 배심은 얼마나 든든하였던가.

현장에 내려온 일부 일군들이 남은 기간에 증산과제를 정말 해낼수 있는가고 의혹을 털지 못해 물을 때마다 로동자들의 대답은 짧고도 명백했다.

《죽으나사나 해야지요.》

난관과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런데 시간은 사정없이 흘렀다. 종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법들이 경쟁적으로 창안도입되였다.

기관차조립직장 차바퀴작업반 로동자들은 마지막공정으로 되여있던 축합조립을 먼저 선행시켜 조립기일을 단축할수 있게 기술공정을 갱신하였고 대차작업반 로동자들은 한개의 대차씩 조립하던 기존공정을 타파하고 3개의 대차조립을 단번에 밀고 나갔다.

그야말로 기적우에 또 기적을 낳는 날과 날이 흘렀다.

2가공직장 전기기구작업반에서 후라이스반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던 부속품가공을 선반에서도 진행할수 있는 지구를 창안제작하여 생산능률을 1.5배로 높이였다. 1.5배, 2배, 3배의 실적은 어느덧 평범한것으로 되여갔다.

주물직장 주강작업반에서 새로운 작업방법을 창안하여 표대당 한개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전기자토시를 5개 생산해내는 눈부신 기적이 사람들을 놀래웠다.

지난 시기 전기기관차를 다 제작해놓고도 전기기구보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해 기관차를 뽑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70일전투기간에 전기기구직장 로동자들은 3월 16일에 맡겨진 전기기구제작과제를 끝내였고 보름후인 3월말에 나머지 2대분의 과제까지 끝내여 조립현장에 차체가 들어오고 전동기가 넘어오기 전에 미리 전기기구보장을 앞세워주었다.

대중의 정신력에는 참으로 한계가 없었다.

철야진군의 나날 근 100건에 달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방법이 도입되였고 나라의 형편으로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재도 마련되였다.

승리의 결승선을 향한 공격속도는 분과 초를 다투며 높아져 마지막전기기관차 《붉은기》 5435호가 이틀동안에 조립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철판이나 자재의 수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에서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자력자강의 투사가 되겠다고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정신력은 참으로 무한하였다.

70일전투의 승전기적소리

사나이들의 눈굽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서로 손을 움켜쥔 이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했다.

그 시각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고 있었으리라.

(경애하는 원수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하였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한참이나 말없이 서있던 전동기공장 전 지배인 리윤국동무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돌리며 말하였다.

《기자동무, 이 위대한 힘에 대해 꼭 써주시오!》

우리는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격정이 솟구치고있는지 잘 알고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실 때마다 전동기제작문제는 항상 화제거리였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은 절연물의 하나인 운모까지 제재항목에 올려놓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주물, 가공, 소재, 제관, 조립현장들에서 작업방법들을 갱신하며 기일을 단축해나가고있을 때 전동기공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가지 수입자재들을 국산화해나가는 전투가 벌어졌다.

전동기공장 전 지배인이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공장로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경험과 기술을 짱그리 다 바쳐 우리 식의 운모생산방법을 확립하였고 와니스에 의한 절연물함침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이상 줄일수 있는 경화제를 개발하여 전동기제작기일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제는 이러저러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만은 수입해야 한다고 하는따위의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되였다.

리윤국동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해하며 이렇게 계속했다.

《오늘의 70일전투가 우리 새 세대 로동계급을 이렇게 위대한 인간으로 키웠습니다.》

그렇다. 련합기업소 70일전투목표의 마지막호인 《붉은기》 5435호의 기적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그토록 파고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투지휘하신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자력자강의 붉은기정신을 바통으로 이은 또 다음세대가 태여났다는 가슴벅찬 흥분에서이다.

이번에 70일전투목표를 한달나마 앞당겨 수행하여 직장을 련합기업소직인 본보기단위로 만든 전기기구직장장 유재식동무의 부모는 우리 당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붉은기》 1호제작에 참가한 전투원들이였다. 유재식동무는 지난해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때에도 큰 몫을 맡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시운전에도 참가하였으며 며칠후에는 우리 원수님의 표창장도 수여받았다. 붉은기정신을 피줄로 이어받은 그가 당이 호소한 70일전투에서 또다시 눈부신 자욱을 새겼다는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기관차조립직장에도 대를 이어 초소를 지켜가며 혁신하고있는 사람들이 10여명에 달한다. 아버지가 《붉은기》 1호제작자들중의 한사람인 한영훈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성장하여 70일전투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고 전기기관차수리에서 위훈을 떨쳐 로력영웅이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선공이 된 전명진동무도 오늘의 철야진군에서 혁신자로 이름떨치였다.

소재, 가공 등 그 어느 직장에 가나 자력자강의 붉은기정신을 피줄로 이어받은 새 세대들이 70일전투기간에 발휘한 위훈담을 들을수 있다.

이런 계승의 대오가 날로 강화되여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붉은기전통을 또다시 지키고 빛내인 단위로 만리마시대창조의 갈피에 뚜렷이 새겨졌다.

※ ※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의 70일전투성과는 단순히 전기기관차 몇대를 더 만들어낸데 있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시대에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제집화한 또 새로운 붉은기세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대오가 억세게 자란것이다.

력사와 전통은 그 어느 단위에나 다 있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라고 우리 당은 부르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옥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몽골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쑤펜긴 초그제델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질성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잘하고있는 영광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할 커다란 성과

농기계부문에서 12종의 농기계를 새로 연구개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만든 제품들은 하나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발휘하여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훌륭히 제작한 단위들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70일전투기간 농기계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11종의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시제품과 함께 12종의 농기계들을 새로 연구개발하여 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이 성과는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연구개발한 소형버수확기, 종합토양판피기기, 이동식장생이종합탈곡기, 이동식버종합탈곡기, 소형도랑파는기계, 배낭식미립분무기를 비롯한 12종의 농기계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지방별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제작완성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심장에 새긴 농기계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농촌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알곡증산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성과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 몸소 타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소형버수확기만 보더라도 연료소비량이 적고 작업능률이 대단히 높아 매우 실리적이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한 이 농기계의 하루작업량은 3.5정보로서 한사람의 운전동력만 있으면 수십명의 로력을 대신할수 있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교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제작완성한 종합토양판피기계는 깊은층들춰갈이를 하면서 동시에 흙밥부스러뜨리기와 수평고루기를 진행하는 능률적인 농기계이다.

용진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봄갈이에 이 농기계를 리용해본데 의하면 정보당 연유는 종전보다 30~40%나 절약되고 작업능률은 1.6배로 올랐다고 한다.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에서 제작한 이동식버종합탈곡기, 신원련결농기계공장에서 제작한 이동식장생이종합탈곡기, 락산련결농기계공장에서 제작한 소형도랑파는기계들도 필요에 따라 임의의 장소로 옮겨가면서 영농작업을 할수 있게 설계제작되였다.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새롭게 연구개발한 배낭식미립분무기는 약물루림장치에 극소형전동기를 설치하여 분산되는 약물방울들이 회전원반의 원심력에 의하여 보다 미립화되여 뿌려짐으로써 약물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강서구역 보산협동농장에서 이들이 연구개발한 배낭식미립분무기를 입덧비료주기에 리용해본데 의하면 정보당 약물소비량은 종전의 수압분무기에 비하여 1/20로 줄어든 반면에 작업능률은 적어도 5배이상이나 높아졌다고 한다.

이 농기계들마다에는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 더 많은 무장장비를 보내주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온 농기계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이들은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탄약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맨손으로 괴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발휘하며 새로운 농기계개발열풍을 일으켰다. 막아나서는 난관과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농촌기계화초병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설계와 시험을 거듭하며 탐구와 혁신의 낮과 밤을 이어왔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이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한다면 세계를 딛고 올라설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배심을 가지게 되였다.

지금 농기계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기계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있다.

박영진

당 제7차대회결정을 받들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자연에네르기개발리용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전자공업성에서 10kW, 600W풍력발전기들을 새로 제작하였다.

10kW, 600W풍력발전기들을 제작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제작된 이 풍력발전기들은 전자공업성과 성아래의 여러 단위들에서 설계제작한것들이다.

전자공업성에서는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각이한 출력의 풍력발전기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제작하여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마련할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성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10kW, 600W풍력발전기들에 대한 설계 및 제작과제가 해당 단위들에 분담되고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기어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성의 일군들은 풍력발전기의 설계 및 제작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에 자주 내려가 절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70일전투목표를 달성하도록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일군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10kW풍력발전기제작을 맡은 정성자동화기구공장과 새날전기공장, 전자기술제품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일군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발한 착상, 대담한 실천으로 뚫고나가면서 깊이가 3, 8m 되는 3개의 수지날개와 영구자석발전기, 선회부, 탑 그리고 조종반 등을 성과적으로 제작하고 조립, 설치하였다.

이 풍력발전기는 시동풍속 3m/s, 정격풍속 10m/s로 설계되였다고 한다. 이번에 제작된 10kW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해본데 의하면 날개의 회전수가 150회/분일 때 10kW의 정격출력으로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와 새날전기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일군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의 600W풍력발전기도 성과적으로 제작되였다.

날개의 형태가 새롭게 설계된 이 풍력발전기는 일명 도시형풍력발전기라고 부르는것으로서 건물의 지붕우 등에 설치하여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풍력발전기의 날개직경은 1.2m, 시동풍속은 3m/s, 정격풍속은 8m/s, 총중량은 70kg이다.

시험운영결과에 의하면 이 풍력발전기로는 풍속 6m/s일 때 510W, 8m/s일 때 630W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이 풍력발전기들을 제작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을 새로 확립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 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섰다.

각이한 출력의 태양빛전지판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생산할수 있는 이 공정은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마련한 충정의 선물이다.

자연에네르기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번 70일전투기간에 풍력과 지열, 태양빛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실적을 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연구소의 일군들은 이미 전부터 추진하여오던 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확립을 무조건 당 제7차대회전으로 끝내고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장하게 짜고들었다.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일어나 현존토대를 최대한 리용하면서 태양빛전지판생산을 위한 작업현장을 실리있게 꾸리고 필요한 설비들을 구입하는 한편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종에 근 20대의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면서 기술력량을 증비하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었다.

실장 박사 김철, 연구사 곽성봉동무를 비롯한 태양빛전지응용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소장 리명선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일군들과 전체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밑에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만에 헤이자절단공정, 박편납땜공정, 모듈조립공정, 밀봉공정, 틀조립공정, 측정공정 등으로 이루어진 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을 훌륭히 확립하고 곧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생산공정에서는 현재 출력이 수십W로부터 300W이상되는 태양빛전지판들이 조립되여나오고있다. 과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수백kW로부터 가정용에 이르는 태양빛전지충전조절기들과 정현등응충전조절기들을 비롯한 각이한 능력과 용도의 조종장치들도 개발도입한것을 비롯하여 태양빛에네르기발전체계확립에서 국산화비중을 적극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연구소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에 토대하여 70일전투기간에만도 여러 단위들에 태양빛전지를 리용한 전력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금도 각지의 현대화대상들에 도입할 수백W출력의 태양빛전지판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전력증산을 담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에 특풍노도와 같이 떨쳐나 과학기술성과들을 다발적, 련발적으로 이룩하여온 과학자, 기술자들속에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는 전력생산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10여건의 연구과제들을 70일전투결의목표로 내세우고 전체 돌격대원들을 그 완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여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내세운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현장로동계급과 철야전투를 벌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며칠동안에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물리화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고온그리스가 떨어져 공기차단기의 정상운영에서 큰 지장을 받게 되자 현장실정에 맞게 내부에비를 탐구봉원하여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렸다.

이들은 현장들에서 리용하는 모든 그리스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강좌에서 새로 개발한 나노재료를 첨가제로 하는 새로운 고온그리스를 제조함으로써 공기차단기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용접공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은 급수뽐프의 운영과정에 마모된 균형판과 맞댐판을 용착방법으로 재생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강도를 보장할수 있는 이중피복을 씌운 용착봉과 일반심선을 리용한 새로운 용착봉을 연구제작하였으며 현장조건에 맞게 랭간상태에서 용착할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이들이 제작한 국산화된 용착봉들로 용착하면 강도를 종전에 비해 2~2.5배나 더 올리면서도 기계가공을 보장할수 있어 현장일군들과 기술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있다.

정성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급수뽐프의 회전날개의 탈음을 방지하고 진동확대를 억제할수 있는 페놀강화수지를 리용한 기밀고리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개선된 기밀고리를 급수뽐프에 도입한 결과 회전날개의 마모정도는 종전의 기밀고리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진동은 현저히 감소되였으며 수명도 훨씬 늘어나게 되였다.

국가과학원 력학연구소 기계진동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급수뽐프의 부분품들을 조립하는데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중심맞추는 기구를 제작하여 과학적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지메탈들의 결함을 퇴치하고 회전자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회전자축의 동심을 맞추는 문제 등 급수뽐프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현장기술자들과 함께 지혜를 합쳐 풀어나갔다.

부원 김정웅동무를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은 탕조직의 지도밑에 과학기술성과들을 도입하는데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장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때에 풀어주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로 전력증산을 담보해나갈 신심에 넘쳐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박현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가 은을 낸다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첨단돌파전에 파감히 떨쳐나선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이류화몰리브덴윤활제, 벨트콘베아수지굴개, 반구형정머리, 수지복합베아링 등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연구소에서 최근시기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첨단돌파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국산화의 쏠림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연구사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과학연구성과들은 현실에 제때에 도입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기관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려 과학기술적으로 가치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하나로 결합시켜 인민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소에서는 이미 있던 생산기지들을 리용하여 개발한 이 첨단기술제품은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콘베아의 수명을 늘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탄광들에서 생산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수지굴개안에 들어가는 수지복합베아링도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한 첨단기술제품이다.

이 수지복합베아링은 천연고체윤활제를 첨가하여 제작하였기때문에 미끄럼특성과 내마모성이 매우 우월하다.

탄광, 광산들에 도입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반구형정머리생산도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지난 시기 탄광, 광산들에서 쓰이던 일자형정머리의 결함을 분석하고 암반이 깨지는 성질을 리용하여 만든 반구형정머리는 일자형정머리에 비해 천공속도가 높고 수명이 길며 연마석소비, 경질합금소비가 대단히 적어 그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첨단기술제품생산을 더욱 활성화해나가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간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 본사기지 신종혁 찍음

교단은 달라도 애국의 마음은 하나

초고전력전기로 로바닥수명을 늘인 여러 대학의 교육자들

우리가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선봉에 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을 찾은것은 며칠전이였다.

붉은 쇠물이 이글거리는 초고전력전기로앞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귀전에 또 한차지의 쇠물을 뽑아내고 흥에 겨워 들썩이는 용해공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학기술을 도입하니 이렇게 좋구만. 오늘까지 700차지가 넘었는데 아직도 로바닥이 정상이라니 이달계획은 문제없겠소.》

영문을 묻는 우리에게 강철직장 책임기사 지정호동무는 초고전력전기로 로바닥의 전통적인 쌓기방법을 달리하여 로보수주기를 훨씬 늘인 이 과학기술성과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그 성과속에 어려 대학교원들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그들을 꼭 소개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나라의 강철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강선땅의 로동계급이 제일 안타까운 때는 초고전력전기로를 보수하는 시기였다.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끓여 많은 강철을 생산해야 하겠는데 로보수주기는 어길수 없었던것이다.

로보수주기를 늘이자면 전국에 의해 로바닥이 패이는것부터 막아야 하였다. 어느날 로보수를 진행하던 책임기사 지정호동무에게는 문득 좋은 착상이 떠올랐다.

(로바닥에 벽돌을 눕혀쌓지 말고 세워쌓는다면 로바닥이 패이는 현상을 막을수 있지 않을가?)

벽돌의 생산과정과 전기로의 작업공정을 련관시켜 꼼꼼히 생각하던 그는 무릎을 치며 일어섰다. 그는 즉시 강선공업대학의 관록있는 심경철교원을 찾아갔다.

책임기사의 기발한 착상은 교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제는 새롭게 벽돌을 쌓았을 때 믿음직하게 받들어온 강선의 로동계급, 이런 자랑스러운 로동계급의 투쟁을 과학기술연구성과로 추동하는것이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정욱동무는 그달음으로 초고전력전기로의 생산능률을 배로 높일수 있는 로바닥쌓기와 관련한 열력학계산에 들어갔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로바닥의 수학적모형화, 그에 따르는 계산식의 도출, 력학해석프로그람을 리용한 편미분방정식의 해석적풀이…

강선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잦아졌으며 그럴 때마다 로교원들은 정욱동무를 힘껏 도와주었다. 로교원들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탐구의 주로를 힘차게 달려온 정욱동무는 마침내 고질내화벽돌을 리용한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용적인 로바닥쌓기방법을 위한 열력학계산을 완성하고야말았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초고전력전기로에 새로운 로바닥쌓기방법을 도입해본 결과 지난 시기보다 로보수주기가 3배이상 늘어났다.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 나라의 강철생산에 크게 기여한 우리의 교육자들처럼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키우에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담고 건설장에서 흙 한삽을 떠도 애국의 마음을 바칠 때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는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다.

본사기자

어제도 오늘도 한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개건보수공사가 힘있게 벌어지는 김일성경기장에 가면 밤마다 수많은 청년들과 녀성들이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들속에는 서성구역 서산1동 7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희숙녀성도 있다.

충정의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떨쳐나서던 그날 전희숙녀성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잊을수 없는 40여년전의 나날들이 추억깊이 되새겨졌다. 단발머리처녀시절 혁신자로 이름떨치며 남먼저 70일전투계획을 수행하고 영예의 꽃다발을 받던 나날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처녀시절처럼 실천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리라.

그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리라 결심하였다.

건설자들과 야간지원돌격대원들은 젊은이들과 한데 어울려 절싼 일솜씨를 보이는 전희숙녀성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20여년세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여러 대상건설에서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아는 돌격대원들은 없었다. 청류다리(2단계)건설, 청년영웅도로건설을 비롯하여 그는 중요대상건설이 진행될 때마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지난해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설 때에도 건설장에 자기의 순결한 마음을 다 바치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조국보위초소에 선 자식들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속도전의 기상이 나래치던 1970년대 70일전투때처럼 오늘의 보람찬 전투의 참전자로 살고싶은 마음뿐이였다.

당을 따르는 그 마음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

본사기자 장선숙

인디아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 출발

박명국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5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5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경경기판에서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에술체조 청년급 검열경기가 있게 된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가 계속 벌어진다.

남자축구경기는 5월1일경기장에서, 녀자축구경기는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5일 남자 룡남산:리명수 압록강:장수봉 월미도:4.25 녀자 리명수:료향산 평양:소백수 봉화산:장수봉

16일 남자 소백수:선봉 평양:경공업성 제비:홍불 녀자 내고향:압록강 월미도:제비

17일 남자 룡남산:장수봉 리명수:4.25 압록강:료향산 월미도:려명 녀자 리명수:갈매기 모항산:경공업성

18일 남자 기관차:경공업성 소백수:홍불 평양:제비

19일 남자 룡남산:4.25 장수봉:료향산 리명수:려명 압록강:월미도

20일 남자 선봉:홍불 기관차:제비 소백수:평양

조별련맹전에서 1, 2위를 한 4개 녀자팀들의 대각경기가 19일(목요일)에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SR전동기를 리용한 탄광전차와 적재기, 전기식착암기 제작

채취기계공업국에서

채취기계공업국아래 동림전기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SR전동기를 리용한 탄광전차와 적재기, 전기식착암기들을 제작하여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내놓았다.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전기기계연구실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만들어낸 이 기계설비들은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아 해당 부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SR전동기의 광범한 도입은 세계적인 발전추세로 되고있다. 그것은 SR전동기가 다른 전동기들에 비해 모멘트특성과 조종성이 좋고 기동전류가 작으며 견고한 구조적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동림전기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SR전동기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장에서는 새 전동기를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도달하면서도 현재 우리 나라의 탄광, 광산들에서 널리 리용하는 전차와 적재기에 그대로 설치할수 있도록 기술발전전략을 명백히 세우고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당의 품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로 자라난 김익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집단은 자신만만한 과학적배짱을 안고 고심어린 연구를 진행하여 끝내 탄광전차, 적재기, 착암기 등에 도입할수 있는 우리 식의 SR전동기들을 개발하였다.

실장 리경호동무를 비롯한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전기기계연구실의 과학자들이 SR전동기의 조종부인 변환기를 훌륭히 개발하는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동림전기공장과 여러 채취공업부문의 단위들에 탐구의 자욱을 이어가며 우리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변환기의 주회로와 조종방식을 새롭게 확립하고 한소전처리소자에 의한 합리적인 조종프로그람까지 개발하여 원가를 크게 줄이면서 막장조건에서의 믿음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채취기계공업국에서는 SR전동기를 리용한 새로운 기계설비제작전투에 불을 점화하였다.

이들은 동림전기공장과 협동하여 SR전동기와 감속계통의 일체화를 실현할수 있는 기술까지 확립하였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도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SR전동기를 리용한 전기식착암기를 성과적으로 개발하였다.

SR전동기를 장비한 새로운 탄광전차와 적재기, 착암기는 전력소비가 종전의 설비들에 비하여 대단히 작고 전력주파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뿐아니라 매우 견고하다.

SR전동기를 리용한 탄광전차는 종전의 전차에 필수적인 기동기와 저항기를 비롯한 전기장치들이 없다. 따라서 그 제작과 수리에서 유색금속을 비롯한 많은 량의 자재가 절약된다.

SR전동기를 리용한 적재기도 경제적실리가 크고 어디서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

10㎥압축기가 있어야 하는 종전의 공기식적재기와는 달리 이번에 제작한 전기식적재기에는 주행부와 권양부에 9kW짜리 SR전동기 두대가 설치되여있다.

SR전동기는 고장이 거의나 없으므로 적재기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고 원격조종까지 실현할수 있다고 한다.

전천착암기공장의 오랜 기술자인 조석형동무와 여러 단위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SR전동기를 리용한 전기식착암기도 종전의 전기식착암기에 비해 타루기가 쉽고 암분배출기능이 있으며 타격에네르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천공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다.

지금 채취기계공업국에서는 SR전동기를 리용한 탄광전차와 적재기, 착암기들을 막장조건에서 운영시험을 거쳐 전국적범위에로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SR전동기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구축된 동림전기공장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탄광전차

적재기

조선로동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위력한 당

남조선 각계의 경탄

창건후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나날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만 향도해온 조선로동당의 비범한 령도력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한목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서울 중구에 사는 한 인사는 인터네트에 《조선로동당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이루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성공을 거듭하고있다.》는 글을 올렸다.

새변회 회장은 회원들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은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으로 변모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적로선에 따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처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위력한 당은 없다고 본다.

부산과 서울의 주민들속에서는 《세상에 당들이 많지만 이북의 로동당처럼 민중의 신뢰와 선망을 받는 당은 아직 없다.》,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당, 사상과 령도가 위대하고 활동이 로숙하며 전도가 양양한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웨침이 울려나왔다.

력사학교수 김광일은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혁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것이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토로하였다.

전라남도 목포일대에 《조선로동당은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전위당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같은 위력한 당을 가지고있는 민족의 영광세상에 자랑하자.》는 인쇄물들이 뿌려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야인사 리철준은 이북의 로동당이 백전백승하는 강위력한 당으로 이름떨치게 된것은 바로 김정일령수님의 현명한 령도때문이라고 하면서 령수님의 령도밑에 로동당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왔으며 그 과정에 높은 권위와 위풍을 지닌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격찬하였다.

한 정치학연구소의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로동당이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였다.

이 글을 본 여러 대학교수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리론들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세상에 그 위력을 떨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정치리념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고있다고 칭송하였다.

통신,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북이 당규약개정을 통해 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하고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라고 명시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선이 존재하는 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이어나갈 의지를 밝힌것이라고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북의 미래는 창창하다.》, 《위대한 전통과 계승》,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만방에 그 위력을 자랑스럽게 떨칠것이다.》 등의 글들이 인터네트에 실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인터네트신문에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미래는 창창하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도, 통일의 새 아침도 기어이 밝아올것이라는 글이 실려 독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해나가는 이북 로동당의 앞길은 휘황찬란할것이다.》, 《백승의 기상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에서 이땅에 밝아올 통일의 새 아침을 확신한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가슴속깊이 간직된 신념의 웨침이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모두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은 민족의 절실한 소망과 일치하다고 성명은 밝혔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부당한 간섭으로 분렬과 동족대결의 아픈 상처를 아직까지도 가시지 못하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더이상 조국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북과 남이 반드시 단결단합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은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동의할수 있는 합리적방안이며 세계 진보적인류가 지지할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안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대강을 마련하였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자주, 평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을 담아 합의한 공동선언들부터 지체없이 리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없이 통일을 이룩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간섭과 지배책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은 요구하였다.

성명은 전쟁반대, 자주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의사가 집대성되여있는 조국통일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을 따르는 남녘의 민심

3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리며 자기의 끝없는 경모심을 분출시켰다.

그는 《마당지우밀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개설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모두 156건으로 나누어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주체철학》, 《주체정치경제학》, 《전통과 력사》,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리해》 등의 문건들도 게시하였다.

이에 앞서 2009년부터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를 비롯한 여러 홈페지의 운영자 혹은 회원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우월한 제도를 찬양, 선전하는 글들을 올리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 민족대국상때 자기가 운영하던 홈페지에 싸이버분향소를 설치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고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들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이로 하여 괴뢰당국의 가혹한 탄압을 여러차례나 받았지만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글들을 계속 홈페지에 올리였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 량산시 삼양교회의 한 목사가 인터네트웨브싸이트에 《세계는 김정은조선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등의 글들과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남녘의 민심은 날로 더욱 거세찬 흐름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파쑈의 광풍도, 분렬의 장벽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를 타자고 호소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남조선인터네트신문이 글 게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2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만리마를 타자고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언하려고 한다고 글은 격찬하였다.

글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사회주의대중운동력사에서 최고조에 이른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호소문은 그 내용도 전례없이 격동적이고 전투적이며 인상적이다.

사상리론적으로 깊이가 있지만 표현에서 매우 통속적이다.

대중적영웅주의운동, 일심단결대강국, 5대교양공세전, 과학기술봉마, 전민무장항전, 반제계급전, 만리마선구자, 만리마선구자단위, 만리마동상, 백두의 칼바람폭풍이란 말들이 다 인상적이다.

핵과 관련한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핵강국, 핵보검, 핵몽둥이, 경제건설의 수소탄, 주체적핵무장력이란 말들은 모두 힘이 넘친다.

호소문만 보아도 목표달성은 시간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왜 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중앙통신】

잎새마다에 어린 열정과 헌신

정방산유원지관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목란꽃은 우리 인민이 제일 사랑하는 국화입니다.》

기묘한 산봉우리들과 기암절벽들, 울창한 수림이 조화롭게 어울려 명산으로 이름난 정방산의 아름다움은 조선의 국화 목란꽃을 떼어놓고 결코 생각할수 없다.

정방산의 깊은 곳에서 자라던 목란꽃나무가 오늘은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변모된 정방산유원지의 이르는 곳마다에 뿌리를 내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꽃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며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조국땅에 피여난 한 떨기의 꽃을 보시고도 그것을 진정한 인민의것으로 되게 해주시려 그처럼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은 정방산유원지관리소의 종업원들은 목란꽃나무를 가꾸는 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뜻깊은 일터에서 목란꽃나무를 가꿔가는 이들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정방산유원지를 오가며 이들은 목란꽃나무들을 잘 가꾸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꽃나무의 생육에 필요한 부식토와 비료도 주고 나무판리에 정성을 쏟아부으며 종업원들이 걸은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이곳 일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정방산유원지에 목란꽃향기가 넘쳐나게 할 한마음안고 바쳐가는 이들의 지성은 정녕 끝이 없었다.

백수십리나 떨어진 먼곳에서 꽃나무모를 떠가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정방산유원지의 곳곳에 정히 옮겨심고 비바람에 상할세라, 추위에 얼세라 꽃나무곁에서 온갖 정성을 다 바치기도 했다.

꽃나무의 판리와 함께 이들은 선진적인 재배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꽃나무를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연구사업도 힘있게 내밀었다.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강금철, 강철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당 단위 일군들의 방조속에 끝끝내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울수 있는 재배방법을 찾아내게 되였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그대로 열매가 되였는가 드디여 새로 접한 가지들에서 파란 새싹들이 움터났다.

정녕 정방산유원지의 곳곳에 뿌리를 내린 목란꽃나무의 잎새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순결한 량심과 헌신으로 받들어나가는 유원지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한 땀방울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이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의 애국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활짝 피여난 조선의 국화 목란꽃이여서 더더욱 아름답고 향기그윽한것 아니랴.

김성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철산봉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녀성운전사, 운전공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오늘 우리 녀성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굴지의 쇠돌생산기지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녀성운전사, 운전공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자신과 가정보다 당과 수령을 먼저 생각하며 녀성의 몸으로 바람세찬 로천채굴장에서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대형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다루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것인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철산봉의 녀성운전사, 운전공들속에는 운광사업소 7운광직장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 전혜숙동무와 로천분광산 3광구 대형굴착기운전공 박정금동무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9년전 어느날 전혜숙동무는 오래도록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며칠전 남편이 하던 말이 아직도 귀전에서 맴돌고있었던것이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다보니 운전사들의 일손이 딸리는구만.》

남편의 말을 되새길수록 전혜숙동무는 심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던 때가 눈에 삼삼히 떠올랐던것이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생각할수록 어려운 나라형편을 빗대고 한가정의 울타리에만 파묻혀있던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어제날 뻐스운전사로 일했던 그는 결심했다. 철광석수송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가리라고.

기업소일군들이 대형화물자동차운전은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이라고 거듭 만류했지만 전혜숙동무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후 남편과 함께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가 된 전혜숙동무는 단순히 자동차운전만 하지 않았다. 고장으로 몇년째 서있던 대형화물자동차를 맡아 기어이 살려냈으며 식량사정으로 교대운전사들이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남편과 맞교대를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송정의 운행길을 달렸다.

대형굴착기운전공 박정금동무 역시 남편과 함께 로천채굴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몸부림치던 그 나날 그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1년전 눈보라세찬 철산봉을 찾아주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좋은 날 오시어도 되시련만 12월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광산을 찾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은 힘이나마 광물생산에 기여할것을 마음다진 그는 대형굴착기운전공이 되였다. 그때부터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을 받는 혁신자로 이름떨치던 박정금동무는 지난 3월 뜻밖에 굴착기 권양쇠바줄이 끊어졌을 때에도 수리공들을 앉아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운전공과 함께 20여m높이의 굴착기팔에 올라가 쇠바줄교체전투를 벌려 4시간만에 굴착기를 가동시킴으로써 송정의 70일전투를 혁신과 위훈으로 빛내였다.

오늘도 전혜숙, 박정금동무들은 남편들과 함께 광산이 자랑하는 부부혁신자로 값높은 삶을 수놓아가고있다.

가사보다 먼저 국사를

조국과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광물생산에 적극 이바지해가는 녀성운전사, 운전공들속에는 로천분광산 2광구 대형굴착기운전공 태혜영동무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광산사무실로 한 처녀가 들어섰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산군자동차사업소에서 려객뻐스차장으로 일하던 태혜영동무였다.

《저도 철산봉에서 일하고싶습니다.》

텀테비존련속구 《맥금산》의 주인공들처럼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 어버이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겠다는 그의 진정넘친 이야기는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후 남자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육중한 8㎥굴착기운전공이 된 태혜영동무는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집채같은 설비를 다룬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지만 매일과 같이 남먼저 출근하여 굴착기정비를 진행하고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음으로써 쇠돌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나날 그는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녀성굴착기운전공이 되리라는 남다른 소원을 안고 오늘도 태혜영동무는 당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철산봉의 아름다운 한떨기 꽃으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운광사업소 1운광직장 리미옥동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여년간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로 영예떨쳐온 리미옥동무는 비록 가정부인의 몫이지만 언제나 자동차판리를 알뜰하게 하면서 더 많은 철광석을 실어나르기 위해 아글바글 애쓰고있다.

이제 리미옥동무뿐이랴. 전식직장 운전공인 김성실동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소에 배치된 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대형천추형파쇄기운전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뜻깊은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그는 선동원탑제 어렵고 힘든 일에 늘 앞장서왔으며 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혁신으로 작업반이 70일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할줄 아는 철산봉의 녀성운전사, 운전공들, 이들은 오늘도 바람세찬 철산봉에서 혁신과 위훈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진군길에 너도나도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삶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위훈으로 새겨가는 이런 녀성들이 많아 선군의 내 조국이 그토록 강대한것이며 약동하는 젊음과 활력에 넘쳐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순천시품질감독소 홍인향동무는 20여년을 순천구두공장에서 품질감독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다.

제대군판인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인민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품질감독원으로 배치받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오고있다.

그는 늘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일하도록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리고 생산자대중과 합심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찾아내고있다.

70일전투기간에만도 그는 여러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하여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그는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고무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과 자투리천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등을 생산에 받아들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모든 공정들에서 제품을 질적으로 만들도록 정치사업도 하면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도 홍인향동무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장정숙

보석같은 마음을 안고

▌해주시 옥계동 53인민반 오경실동무의 가정▐

뜻깊은 진군절을 앞둔 어느날 우리는 해주시에 대한 취재길에서 낯익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였다. 어려해진 해주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용약 달려나간 리정학,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6명의 청년들이였다.

끝끝하게 성장한 그들의 보습은 대견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더욱 울린것은 그들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바로 해주시 옥계동 53인민반에 사는 오경실녀성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경실동무가 리정학동무를 비롯한 부모잃은 6명의 청년들을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10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퇴근해들어온 남편 박종성동무는 문득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친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을 잘 도와줄수는 없을가?》

그들이란 바로 얼마전 해주중등학원을 졸업하고 오경실동무가 일하는 단위에 어로공으로 배치받은 부모잃은 청년들이였다.

밤깊도록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니 자기의 품에 안겨 잠든 외딸의 모습과 엇갈려 나타나는 청년들의 모습에 오경실동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원군길을 목목히 걸어온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에는 보답이 뒤따라야 하느니라.》

자식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주던 아버지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한일이 적다는 생각에 그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부모잃은 청년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더 잘 도와주자.

오경실동무는 그렇게 하는것이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이며 이땅우에 인간사랑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여 리정국, 리정학, 김성철, 백금덕, 홍영일, 백금혁동무들에게는 오경실동무의 따뜻한 손길이 가닿게 되였다.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부모잃은 청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오경실동무는 그들에게 마음과 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때로는 아픈 매도 들면서 그는 그들이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애써 노력했다. 계절에 따라 새옷과 양말도 마련해주고 누가 앓을 때면 그들을 찾아가 밤새워 간호해주기도 하면서 진정을 부어주었다. 그들이 생일을 맞을 때면 집에서 마련한 별식을 안고 작업현장을 찾기도 하였다.

장선의 《처녀어머니》에 대한 소식에 접했을 때 오경실동무의 가슴은 또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가. 그때부터 그의 손은 더욱 바쁘줄 몰랐다.

그 나날 은 6명의 청년들 모두가 청년강국의 미더운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는 과정이였으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가슴깊이 새긴 나날이기도 하였다.

오경실동무는 가정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인의 전쟁로병들을 도와주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이 깊이 간직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그들이여서 오늘은 2명의 청년들이 선장으로, 모두가 혁신자로 자라났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오경실동무, 바로 이런 미덕의 소유자들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진주보석처럼 빛을 뿌리기에 우리 조국의 앞날은 그처럼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리승철

독자의 편지

널리 자랑합니다

군사임무수행중에 제가 뜻밖의 부상으로 광명을 잃은지도 어언 수십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 저는 고마운 사람들의 방조속에 그 어떤 불편도 모르고 행복에 겨운 날과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앓을세라 따뜻이 넘려도 해주고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솔선 맡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속에는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산하단위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김성훈동무도 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서 입원치료를 함께 받으며 알게 된 그는 자신도 영예군인이여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지만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나날 저를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쳤습니다.

어떤 중앙병원의 의료일군들을 만나 저와 안해의 건강증진에 좋은 약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기시기 대책을 세워주었을뿐이랴 생활필수품들도 성의껏 마련하여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극진히 위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긴 하였지만 사업에서 지장을 받을가봐 때로 제가 평양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때면 그는 우리야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할 영예군인들이 아닌가고 하면서 친혈육의 정이 담긴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달 그는 김동숙동무를 비롯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의 마음까지 합쳐 지성어린 물자들을 또다시 보내왔습니다. 얼마전에는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국장 리영철동지가 신의주시에 출장을 왔던 길에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향의 식료품들과 옷가지들, 약들을 가져다주어 저와 안해는 물론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주었습니다.

진정 고마운 사람들의 사랑과 정에 받들려 한점 그늘이 없이 삶의 희열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처럼 복받은 영예군인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습니다.

신의주시 방직동 리정수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운전군 관평협동농장 농장원 로재일, 리초옥부부는 자식들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세웠다.

이들부부는 이럴 때부터 자식들에게 용대의 귀중함을 새겨주며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도 당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데 있다고 늘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부모의 당부대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자식들은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자식들의 자랑이 담긴 소식들이 연방 날아올 때마다 이들부부는 후방가족의 긍지와 자랑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리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도 앞장에 서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은숙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새로운 궤도우에 올려세운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밝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추동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록에 마치와 낫, 붓을 아로새긴 그때부터 우리 인민과 혁명, 조국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치의 편차도 없이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당은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운명도 함께 책임지고 자기의 령도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혁명투쟁의 력사에는 만국의 로동자들을 투쟁에로 부른 빠리콤뮨도 있었고 《아브로라》호의 포성으로 자본의 아성을 뒤흔든 사회주의10월혁명도 있었다. 인류력사상 첫 프로레타리아혁명으로 알려졌던 빠리콤뮨은 압제자들의 탄압에 의해 끝내 실패됐고 사회주의10월혁명의 산아인 동유럽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춘 배신자들에 의해 수십년만에 붕괴되고말았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어대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과 침략책동에 미쳐날뛰고있을 때에 우리 당은 인류의 반제자주위업,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운명도 통채로 걸머지게 되였다. 어디에 의존할데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데도 없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던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 조선로동당은 단독으로 인류의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그 승리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이라는것을 사상리론적으로 명확히 밝혔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의 좌절을 전후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사상리론적견해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있었다. 사회주의는 어떤 사상이며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 사회주의좌절현상은 왜 나타나고있으며 진정한 리상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놓고 갑론을박하고있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는 《유토피아》와 같은 헛된 망상이고 자본주의야말로 《인류의 리상사회》, 《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설교하고있었다.

어느 공산당이나 정치가, 사회학자도 력사의 반동들이 떠벌이는 궤변에 된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사상리론적으로 명확히 밝히시여 원쑤들의 망발에 된타격을 안기시고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 초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에꽈도르화익민주당대표단, 스웨덴에콩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 우루과이3월26일운동대표단,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 대표단들과 당수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서 사회주의의 불패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는데 대하여 철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로 되며 그러한 사회주의는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철의 진리로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의 영상에 먹칠을 하며 압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좌절이라는 력사의 돌풍에 휘말려들어 산산이 흩어져 가던 혁명적당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세계 혁명적당들을 단합시키고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킨 기치가 바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정양선언이다. 우리 당의 주동적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력사적인 정양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당들이 들고나갈 공동의 투쟁강령이 마련되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일시적인 혼란상태를 끝내고 주체의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대오의 조직적결속과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계속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하며 그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실천활동으로 확증해주었다.

랭전종식후 조미대결전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리념적대결이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종말》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된 속에서 조선은 곧 사회주의였고 정의였다. 조선의 힘이자 사회주의의 힘이였고 정의의 힘이였다. 때문에 조선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주도의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대결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적대결, 정의와 부정의의 힘의 대결로 되였다.

적대세력들은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도록 핵위협공갈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놓았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졌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력사의 폭풍을 맞받아나가면서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선군의 위력, 군사강국의 위력으로 적들의 계속되는 침략적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시였다. 랭전종식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고 미제가 우리를 핵위협공갈하던 불공평한 시대를 끝장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력사적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그 어떤 대적도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려고 그토록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념원과 부국강병을 바란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원을 받들어 주체조선을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내세우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제도붕괴》와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망은 력사의 기슭에 밀려난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준엄하면서도 성스러운 투쟁과정에 조선로동당은 이 행성에 사회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으며 그 힘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보다 더 강하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에 고무를 얻은 나라들의 혁명적당들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있는 한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는 그 누구도 말살하지 못할것이다.

리 경 수

삐루인사의 글

자기의 존엄을 만방에 과시하는 나라

삐루 원유 및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프란끄 제레로가 신문 《깔라오》에 《21세기 반도의 미해결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의 균형정책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도발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은 조선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21세기 오늘에도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은 보란듯이 수호되고있다.

1950년대 조선전쟁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수많은 병력을 들이밀어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는것이 명백하다.

당시 조선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장군께서는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미군에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조선이 미국을 타승하게 된 비결은 김일성장군의 탁월한 령군술과 군인들의 정치도덕적우월성에 있다.

전후 미국은 유엔헌장에 어긋나게 조선반도정세를 계속 격화시켜왔다.

현정세하에서 조선반도문제가 해결되자면 미국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책동을 중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간섭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다.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미국은 남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로, 조선인민을 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으로 키우시였다.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를 물리치고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더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며 자기의 존엄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할것이다.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회담은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울 때에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조선은 미국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로케트발사훈련을 하고있다.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눈부신 과학기술발전을 이룩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실시, 금속 및 기계제작공업의 급속한 발전 등은 세계인민들의 동경과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인민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조선은 21세기에도 국제정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지만 조선인민은 나라의 령토와 령해, 자주권수호를 위해 억세게 투쟁하고있으며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함께 추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대표단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10일과 11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데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데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몽골 김정숙유치원, 몽골김정일화협회,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캄보쟈국카라지오방송총국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메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번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반영이다.

조선의 진정한 벗들인 우리들은 력사적인 이 사변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한편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쑤 꼬호비도 우리 나라 대사관에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여왔다.

축하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로씨야, 도이췰란드, 앙골라에서 축하모임이 4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도이췰란드공산당, 도이췰란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소, 앙골라 에메신문사, 제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앙골라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대리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에게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구한 기간 승리만을 떨쳐왔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같은 필승불패의 당, 인민대중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당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70일전투의 나날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모두의 커다란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제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앙골라위원회 사회교육부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불레찐특간호 발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기네전국위원회에서 4월 29일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이라는 제목의 불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국제사회에서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1945년 10월 10일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성상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지도사상에 있다.

둘째로, 강철같은 통일단결에 있다.

셋째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있다.

하여 조선에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실현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모시여 불패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우리 나라와 유럽동맹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유럽동맹과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유럽동맹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유럽의 완전한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지역통합기구이다. 영문표기로 EU라고 한다.

유럽동맹의 전신은 유럽공동체이다. 성원국들의 집단적인 경제적리익을 보장할것을 목적으로 1967년 이미 있던 유럽석탄강철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한 유럽공동체가 창설되였다. 그후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유럽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통합체를 창설할데 대한 마스뜨리흐뜨조약이 체결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93년 11월 유럽동맹이 정식 창설되였다.

유럽동맹의 주요기관은 유럽리사회, 유럽동맹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이다. 유럽리사회는 동맹의 최고정책작성기구로서 성원국들의 수뇌자들로 구성되며 동맹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는 역할을 한다. 유럽동맹위원회는 동맹의 상설집행기구로서 동맹의 조약과 결정의 리행을 감독하며 재정지출과 일상적인 업무활동을 맡아한다.

유럽의회는 유럽동맹의 중앙대의제기관으로서 유럽동맹의 일반법들을 채택하고 예산을 비준하며 유럽동맹의 이름으로 국제협정들을 체결하고 동맹의 집행기관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있다. 유럽동맹의 수도는 브뤼쎌이다.

유럽동맹의 기발은 검푸른색이며 거기에는 12개의 오각별이 원형으로 새겨져있다.

현재 유럽동맹성원국수는 28개이다.

유럽동맹은 성원국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이 란 에 서 배 무 이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5일 이 나라의 퓨연구쎈터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7%가 현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할것이 아니라 국내문제들에 낯을 돌려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한편 미국청년들속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다. 최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전한데 의하면 18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자의 뻔뻔스러운 수작

끌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의 내각회의라는것이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수상 네타냐후는 저들이 끌란고원을 차지한지 거의 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기때문에 국제공동체가 그 지역이 자기네 땅임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뇌까렸다.

침략자의 뻔뻔스러운 수작이 아닐수 없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래 끌란고원은 수리아의 령토였다.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던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중동전쟁을 일으켜 수리아의 땅을 강탈하였다.

끌란고원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유태인정착촌을 본격적으로 건설하면서 많은 유태인들을 이주시켰다. 1981년에는 강제로 그 지역을 병합시켰으며 영구히 타고앉기 위해 획책하고있다.

자기의 신성한 령토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침략야망과 전쟁책동들을 단죄규탄하면서 빼앗긴 지역들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 과정에 2002년 3월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바이루트선언이 채택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특히 수리아는 끌란고원을 되찾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면서 이스라엘에 여러차례나 협상을 제기하여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제의를 무시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2004년 1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 지역의 유태인정착촌을 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것이다.

수리아가 그것이 평화에 역행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자 정착촌건설계획을 책임진 이스라엘농업상이라는자는 《아싸드가 이스라엘에 소속되여 번영하는 끌란고원을 자기 집 창문에서 보게 하자는것》이라고 하면서 《끌란고원은 우리의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돌려주려 하지 않는다. 지도에 이스라엘령토의 한부분으로 표시할 때가 되였다.》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이것은 끌란고원을 비롯하여 저들이 강점한 아랍나라들의 땅을 절대로 내놓지 않으며 영원히 제것으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한 령토팽창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이스라엘이 끌란고원을 기어이 내놓으려 하지 않고있는것은 그 지역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끌란고원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스라엘과 수리아 쌍방이 모두 중요요충지로 여기고있는 지역이다. 또한 끌란고원에는 많은 강하천들이 흘러드는 뤼베리아호가 있어 물자원이 풍부하다. 이스라엘이 쓰는 물의 40%는 이 호수에 원천을 두고있다고 한다. 이밖에 끌란고원의 농업과 관광업 등도 무시할것이 못된다.

만일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협상하여 그 지역을 스스로 내놓게 된다면 침략전쟁을 일으켜 빼앗은 땅들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끊임없는 침략전쟁책동으로 령토를 넓혀 중동을 좌우하는 지역대국이 될 꿈을 안고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저들의 야망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이스라엘이 아랍나라들의 평화발기를 무시하고 비발치는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차지한 지역들을 내놓지 않고 유태인정착촌들을 확장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각회의를 끌란고원에서 벌려놓은것도 빼앗은 지역들을 영구히 타고앉고 더 확대해나가려는 저들의 령토침략야망을 드러낸것으로 된다.

중동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지역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열의는 높지만 날이 갈수록 지역정세가 복잡해지고 평화과정이 침체상태에 빠져들고있는것은 이스라엘이 령토팽창야망에 미쳐날뛰고있기때문이다.

아랍나라들이 빼앗긴 땅들을 되찾고 지역의 평화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이다. 모두가 단결하여 중동평화의 암적존재인 이스라엘을 들어내는것이다.

김 국 철

오바마가 떠드는 《핵무기없는 세계》는 기만이다

이달에 오바마가 미국의 현직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히로시마를 행각하게 된다고 한다.

히로시마로 말하면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후 미국에 의해 제일 선참으로 핵재난을 입은 수난의 땅이다. 지금까지 력대 미국대통령들이 일본에 갈 때마다 히로시마행각여부문제가 여론의 화제거리로 되군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2차세계대전말기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사용한데 대한 미행정부의 립장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때문이다.

지금 오바마의 일본행각일정에 히로시마가 포함되여있다. 일본에 대한 원자탄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미국내 보수계층속에서는 오바마가 히로시마행각을 삼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한편으로는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행각하여 《핵무기없는 세계》와 관련한 구상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있다.

오바마가 히로시마행각을 통해 노리는것은 임기시작부터 내들었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라는것을 또다시 력설하고 핵범죄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워보자는것이다. 그의 에고편이 바로 얼마전에 미국에서 있은 핵안전수뇌자회의였다.

미국은 회의기간 저들의 사상최대의 핵범죄, 수십년간 인류를 핵으로 위협공갈한 파렴치를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 공화국의 《핵위협》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듯이 오도해나섰다.

핵무기현대화와 핵공갈을 미친듯이 강행하여 조선반도와 세계를 임의의 순간에 열핵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고 《핵군축》과 《비핵세계》타령을 늘어놓는것이야말로 위선이며 파렴치의 극치이다.

력사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불아오는 핵범죄국가이라는것을 폭로하고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해온 미국은 언제 한번 핵의 우세에 의거한 지배주의정책을 포기한적이 없다.

한때 부쉬행정부는 저들의 핵전략수행을 다그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로후한 우라니움핵탄두 6 000개를 신형핵탄두 1 700~2 000개로 교체할데 대한 일명 《콤플렉스 2030》이라는 계획을 꾸며냈다. 2007년 미국회는 이 계획을 심의하고 적수국가들이 이를 악용할수 있으므로 《신행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수들을 속여넘길수 있는 보다 교활한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계획실행에 달라붙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부쉬의 후임으로 백악관에 들어앉은 오바마는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념불을 외워대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5일 오바마는 체스꼬의 쁘라하에서 로씨야와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하고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5가지 내용으로 된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라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저들만의 핵무기보유를 실현하기 위한 핵독점전략이다.

오바마가 집권한 당시 국제적인 핵관련상황은 미국의 지배주의적야망실현에 불리하게 번져지고있었다. 핵무기보유국수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조인되던 시기에 비해 거의 2배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은 핵무기를 기본수단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실현에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오바마행정부로서는 새로운 핵보유국들의 출현과 함께 잠재적적수국가들의 핵무력강화를 막을수 있는 방책이 시급히 필요하였으며 그로부터 고안해낸것이 다름아닌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였다.

이때부터 오바마는 마치도 자기가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듯이 억겁게 놀아댔다. 광대극의 덕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아먹고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올연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수뇌자회의에서 《핵무기없는 세계》 전설과 관련한 결의라는것을 채택하게 하였으며 로씨야와 핵군축문제를 《전지하게》 론의하는 흉내도 피웠다. 2010년 5월에는 자기들의 핵탄두보유실태를 공개하는 그럴듯한 연극까지 놀았다. 하지만 이것은 날강도가 보살흉내를 내는데 불과한것이였다.

오바마의 머리속에는 항상 핵우세에 기초한 세계제패야망만이 가득차있었다.

2010년 3월 오바마는 그 무슨 성명이라는데서 미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핵무기를 축감하고 그 역할을 낮출것이라고 광고하면서 의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할것이라는 꼬리를 달아놓았다. 미국은 2010년에 작성한 《4개년국방전략보고서》에서도 《미핵세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핵군축》의 간판밑에 핵무력의 일방적우위를 보장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같은 해 8월 미국무성 당국자는 로씨야에 체결된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이 미국의 핵무기현대화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줴쳐댐으로써 《핵군축》타령속에 깔린 핵독점야망을 어실히 드러내놓았다.

혹심한 금융위기속에서도 전략핵무기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였으며 핵시험과 새로운 핵무기개발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전파방지 및 무기통제국 국장은 《현 미행정부체제하에서 핵무기현대화는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되고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의 한 인물은 오바마가 한때 핵무기를 철폐할 구상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미행정부는 이 방향에서 그 어떤 실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게다가 노벨평화상수상자자신은 2009년 쁘라하에서 연설하면서 이 구상이 실현될 때까지 살지 못하리라는것을 인정하였다.》고 야유하였다.

범죄적인 핵독점야망을 《핵무기없는 세계》타령으로 분칠하고 핵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행정부의 흉심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야말로 온 세계를 《미국의 핵무기만이 존재하는 세계》,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로 만들것을 노린 음흉한 핵독점전략, 지배전략이다.

그러한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념불을 아무리 외워댄들 누가 곧이 듣겠는가.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간다 해도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은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뻔뻔스러운 궤변뿐일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6107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